

2023년 제29회 법무사 헌법 총평

*담당 : 문태환 교수

1. 쟁점과 지문의 구성

출제된 쟁점을 분석해 보면, 기본권론에서는 총11문제가 출제되었고(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칙(영장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통치구조에서는 9문제가 출제되었다(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국회의 권한, 탄핵제도, 사면제도, 법원, 일반심판절차,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지문은 총 100개가 출제되었는데, 판례지문은 84개, 조문지문은 16개로 구성되었다.

평균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헌법총론에서는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조문지문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판례지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2. 총평

출제된 쟁점 자체는 평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조문이나 판례문구의 내용을 그대로 지문화하기 보다는 각색해서 출제하였다는 점, 판례의 결론만 묻기 보다는 판례 이유부분도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 지문의 길이를 길게 하여 출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다소 높았다고 보여진다.

3. 내년 시험대비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등 헌법시험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선생님과 함께 수업시간에 준비하고 연습했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의 고득점을 위하여 공부의 양과 범위를 늘리기 보다는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법무사 수험생들은 헌법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기 보다는 헌법 수업시간만으로 집중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